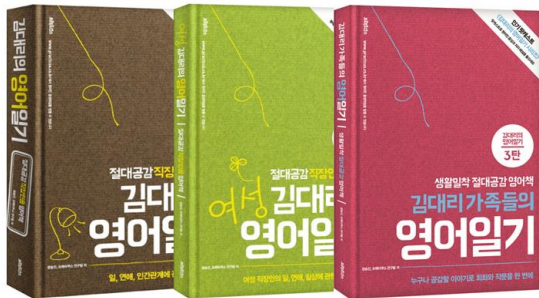


함께 쓰는 영어 일기 55

<광고>



김대리의 영어일기 시리즈

누구나 공감할 내용으로 학습 효과 Up

팟캐스트로 들으면서 학습 효과 Up

얼마 전에 헌혈을 하고 헌혈의 집 근처에 있는 중고서점에 들렀다. 그런데 헌혈의 집에서 봤던 봉사활동 하러 왔다는 고등학교 남학생 두 명이 눈에 띄었다. 그 학생들은 '헌혈하자'라는 글씨가 쓰인 팻말을 들고 서점 안을 어슬렁거렸다. 처음에는 중고서점에 온 사람들을 상대로 헌혈 참여 캠페인을 벌이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이 만화책이 있는 책꽂이 근처만 왔다갔다하는 게 수상해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 학생들은 서점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만화책을 읽기 시작했다. 내가 고등학생이었던 시절과는 다르게 요즘 고등학생들은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 점수를 따야 한다고 들었다. 원래 봉사활동이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법인데 의무적으로 하다니 정말 웃기는 일이다. 학생들에게 억지로 봉사활동을 시키니, 일은 안 하고 시간만 적당히 때우는 게 아닌가? 의무적인 봉사활동 제도라는 것을 생각해 낸 사람도, 봉사활동 시간에 만화책이나 보는 학생들도, 모두 한심하고 얕잡다.

I stopped by a used book store after donating blood. At the store were two high school boys who were volunteers at the blood donation center I had just visited. They were walking around in the bookstore with the signs saying "Donate blood." First I thought they were campaigning to join the blood donation for students visiting the bookstore. But I became suspicious of them as they were lurking around the comic book section. My instinct was correct. They sat in chairs and started reading comic books. Unlike when I was in high school, students nowadays have to participate in volunteer programs to obtain credits for graduation. Volunteering, by definition, should be something voluntary. But for many students, volunteering is obligatory. It's nonsense. I think they are just killing time because they have to do it for grades in order to graduate. Shame on those who made a volunteer program a required course and the two students who are reading comic books during their volunteer hours.

얼마 전에 헌혈을 하고 헌혈의 집 근처에 있는 중고서점에 들렀다.

I stopped by a used book store after donating blood.

그런데 헌혈의 집에서 봤던 봉사활동 하러 왔다는 고등학교 남학생 두 명이 눈에 띄었다.

At the store were two high school boys who were volunteers at the blood donation center I had just visited.

그 학생들은 '헌혈하자'라는 글씨가 쓰인 팻말을 들고 서점 안을 어슬렁거렸다.

They were walking around in the bookstore with the signs saying "Donate blood."

처음에는 중고서점에 온 사람들을 상대로 헌혈 참여 캠페인을 벌이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First I thought they were campaigning to join the blood donation for students visiting the bookstore.

하지만 그 학생들이 만화책이 있는 책꽂이 근처만 왔다갔다하는 게 수상해 보였다.
But I became suspicious of them as they were lurking around the comic book section.

아니나 다를까, 그 학생들은 서점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만화책을 읽기 시작했다.
My instinct was correct. They sat in chairs and started reading comic books.

내가 고등학생이었던 시절과는 다르게 요즘 고등학생들은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 점수를 따라 한다고 들었다.
Unlike when I was in high school, students nowadays have to participate in volunteer programs to obtain credits for graduation.

원래 봉사활동이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법인데 의무적으로 하다니 정말 웃기는 일이다.
Volunteering, by definition, should be something voluntary. But for many students, volunteering is obligatory. It's nonsense.

학생들에게 억지로 봉사활동을 시키니, 일은 안 하고 시간만 적당히 때우는 게 아닌가?
I think they are just killing time because they have to do it for grades in order to graduate.

의무적인 봉사활동 제도라는 것을 생각해 낸 사람도, 봉사활동 시간에 만화책이나 보는 학생들도, 모두 한심하고 알밋다.
Shame on those who made a volunteer program a required course and the two students who are reading comic books during their volunteer hours.